

## 우리강산을 지키는 플라스틱 나무 이야기

글. 이영준 이미지 사진비평가

그래도 나무를 믿었다. 특히 마을 어귀를 지키는 당산나무의 기품을 보면서, '그래, 이 땅에는 아직도 지킬 것이 있어'하며 마음을 놓고는 했다. 사실은 '지킬 것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 주는 것이 있다'는 안도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믿는다. 산소를 준다고. 그늘을 준다고. 마음의 평안을 준다고. 나무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너무 간단하고 이상한 대답이지만, 나무이기 때문이다. 농담이 아니라, 나무는 나무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인공 장치에 차양막을 달고 그 아래에는 산소를 방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모양과 색깔은 나무 같이 칠해 놓으면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편하게 바둑을 둘 수 있을까? 우선 의구심부터 가질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게 산소 맞아? 혹시 유해 물질도 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냐? 돈 받는 거 아냐? 등등. 나무는 나무다움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구심도 없이 편하게 몸을 맡기도록 한다. 그게 나무의 미덕이고 자비이고 효용이다. 나무에서 무슨 무슨 물질이 몇 밀리그램이 방출되고 그것은 항암작용이 있고 어디에 종고를 논리적으로 포와 엽록소와 큐틴질과 탄수화물을 알아서 나무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 나무를 이루는 세포 단백질과 모든 것들이 나무 됴됨이를 중심으로 잘 뭉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를 믿는 것이다.

플라스틱으로 된 가짜 나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전국의 주유소와 국도변 식당 옆에서 손님을 끌고 있는 이 가짜 나무들은 그래도 염치는 있어서 이 땅의 수종을 모방하지는 않고 한국에는 없는 야자나무의 꼴을 뒤집어쓰고 있다. 그게 느티나무나 자작나무였다라면 동구 밖 당산나무나 설악산 마등령이 생각나서 좀 반갑기라도 하겠지만 푹푹 찌는 더위에 쇼핑몰이나 끌고 다니는 동남아 패키지여행을 떠오르게 하는 야자라서 좀 기분이 좋은 나무는 아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플라스틱 나무가 발광 다이오드까지 온 몸에 뒤집어쓰고 길거리에서 있으니 그게 좀 기분 나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기분 나쁘고 말 간단한 사태가 아닌 것이, 플라스틱 나무의 등장은 좋은 나쁜든 우리가 가진 나무에 대한 상식과, 좀 거창하게 말하면 에피스테메마저 바꿀 일인 것이다. 사물에 참과 거짓이 분명했던 이조시대 같았으면 플라스틱으로 된 가짜 나무가 길거리에서 있으면 웬 발칙한 나무가 다 있냐고 호통을 치며 당장 뽑아서 절단을 내버렸을 것이나, 지금 시대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하느님도 모르는 시절이다. 즉 우리가 나무에 대해 알고 있던 순수한 지식은 이 세상의 사물들은 모두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잡것이 섞여 있지 않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적어도 근대까지는 이 세계는 단일성(homogeneity)의 개념에 기초해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물도 단일한 범주로 되어 있어야 했고 인간의 종족도 그래야 했고 언어도 그래야 했다. 기이하게도 그 단일성의 개념이 가장 깊이 뿌리 내린 것은 그것을 만들어낸 서구가 아니라 그 한참 변방인 한국이었으니, 그것은 마치 식민지 모국의 풍습과 사상을 모국 보다 식민국가에서 더 열심히 지키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언어와 민족과 나무의 순수성을 굳게 믿었다. 이 세 가지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더군다나 요즘 '우리나무~'로 시작되는 들쳐근한 제목을 가진 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나무는 민족주의적 순수성의 보루마저 되고 말았으니, 그것은 언어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자고 하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다른 모습인 것이다. '우리나무'가 어디 있나? 그저 이런저런 사연으로 한국에 뿌리를 뺀고 살게 된 나무일 뿐이다. 그런 책들 덕에 순진한 나무마저도 이데올로기화되게 된 것이다.

참으로 기묘하게도, 플라스틱 나무가 출현한 것은 '우리나무~' 식의 제목을 단 책들이 출현한 것과 비슷한 시기이다. 풀어 보자면, 외국산 수종들이 이 땅을 침해하기 시작하니까 민족주의적 열정의 발로로 원래부터 변함없이 이 땅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는 나무는 무엇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그런 책들이 나오게 된 것 같다. 사람들이 아파트의 베란다에 심는 풀들도 더 이상 봉숭어나 분꽃이 아니라 제라늄이니 데이지니 메리골드니 하는 서양종이다. 더 나아가 비비추나 미나리아제비나 천남성을 자기 집 베란다에 심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외국산 수종이 이 땅을 침해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든 문화든 꾸준히 자기 안의 것과 밖의 것이 교섭하면서 생존해 왔는데, 갑자기 그 교섭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좀 늦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은 것이다. 늦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교섭을 불순한 것으로 보고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헛 이데올로기가 되고 마는 것이니, 오늘날 언어와 민족과 나무의 순수성을 지키자고 하는 주장들은 대개 그 범주에 든다고 보면 맞는다.

물론 나 자신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색깔도 자연의 나무 색깔이 아니라 플라스틱의 원색을 뻘뻘스럽게 그대로 쓴 데다 발광 다이오드의 불빛마저 발광질 치듯 뻘뻘 저리는 그런 나무를 마음 어귀 느티나무나 마들령 자작나무와 같은 반열에 놓고 취급해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언어의 개념이 바뀌듯이, 나무의 개념도 바뀐다는 것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실내외에 가짜 나무를 장식용으로 두는 일이 많아졌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진짜 꽃이 놓여 있어도 사람들은 의례 가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자연의 개념이 아주 많이 바뀐 것이다. 플라스틱 나무는 그렇게 변한 자연의 개념 속에서 당연히 나무 행세를 한다. 물질이 변하고 속성이 변하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무라고 버젓이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 서식하는 나무의 종류에 하나를 새로이 추가해야 할 판이다. '플라스틱 나무'라는 이름으로.

지구를 주름 잡던 공룡이라는 범주도 하루아침에 멸종하고 다른 범주의 동물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는데, 플라스틱 나무 한 종정도 추가되는 일쯤이야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흡사 모시와 삼베로 되어 있는 옷만 입던 옛날 사람이 오늘날 고어텍스니 라이크라니 노맥스니 하는 옷 재료를 보고는 이것은 옷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일일 것이다. 그런 식의 패러다임 변화는 역사에 얼마든지 있다. 이제 우리는 싫어도 플라스틱 나무를 인정해야 한다.

전은선이 플라스틱 나무 짝은 사연을 얘기하다 보니 서두가 한참 길어졌다. 그렇게 길게 플라스틱 나무 영접하는 법에 대해 얘기한 이유는 그냥 얘기하면 인정하지 않고 바로 내쫓아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건 애초에 나무가 아니니 논할 가치도 없어!'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플라스틱 나무도 나무다. 생강나무나 팽팽나무나 층층나무가 나무이듯이 말이다. 플라스틱 나무를 바라보는 전은선의 시선은 그래서 양가적이다. 별로 반갑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싹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꾸 짝다 보니까 왠지 재미있기도 하고, 슬금슬금 정이 가기도 하는 것이, 먼데서 볼 때처럼 마냥 흥취하기만 한 것도 아닌 것이다.

하긴 사람 사는 꼴이 다 뻘한데, 마당에 천년 묵은 지리산 주목을 옮겨 심어 놓는다고 그 사람이 주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플라스틱 나무가 우리의 공간과 시각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플라스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눈이 발광 다이오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가장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있다면, 나무와 자연에 대한 우리의 고정되고 단일한 믿음이 깨진다는 것이다. 몇몇 사진가들과 나무애호가들, 학자들이 나무에 대한 사진이 잔뜩 들은 책들을 냈지만, 그 책들 속의 나무들은 한결같이 존경과 사랑을 가득 받고 있는 모습으로 찍혀 있다. 전은선이 그렇게 찍을 수 없는 이유는 플라스틱 나무가 밍살스러워서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양가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나무들을 한결같이 뼈뼉하게, 멀리서, 조그맣게, 주변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찍었다. 사실 찍었다기 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플라스틱 나무의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위치에 따라 사진의 배치를 그렇게 하였다. 그녀가 전에 화원을 찍었을 때도 그랬고 카페 노릇을 하고 있는 가짜 배를 찍었을 때도 그랬다. 그녀의 시선은 항상 양가적이었다. 꺼안기는 흥측하고, 버리자니 현실의 일부이고.

‘사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런 양가적 태도에서 오는 곤란함을 치유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사진적 스타일에 힘입어 어정쩡한 상태에서 오는 곤혹감을 감추자는 것이다. 그것은 프로이트가 말한 fort/da 게임과도 비슷하다. 엄마가 직장에 가고 없는 어린 아이가 실뭉치를 던졌다 받았다 하며 ‘fort/da(있다/없다)’라는 말을 반복한다. 이 아이는 엄마의 부재와 현존을 실뭉치의 부재와 현존을 통해 시뮬레이션 하면서 엄마 없는 결핍감을 해소한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해석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fort/da라는 언어로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즉 아이는 언어화함으로써 엄마의 부재라는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운 사태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전은선은 우리의 풍경을 메우는 흥측한 물건들의 현존과, 우리가 꿈꾸는 원형의 자연의 부재라는 이중의 사태에서 오는 고통을 사진의 스타일이라는 언어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대처해 나가려 하고 있다. 사진으로 찍어서 적절히 배치하고 잘 다듬어서 프린트로 뽑아서 벽에 걸면 마음에 안정이 오는 것이다. ‘그래, 저것은 원래 저럴 수 밖에 없었어’ 라는 식의. 물론 사진의 스타일이 언어와 같지는 않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붙잡을 수 없는 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사진은 시각적 묘사의 수사법을 통해, 언어는 언어기호의 분절화(articulation)를 통해 사물을 붙잡아 둔다. 물론 언어에는 언어 바깥의 영역이 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혹은 말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말과 말 사이에 생긴 간극 같은 것 말이다. 사진의 언어에도 바깥이 있다. 전은선이 찍은 플라스틱나무를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다. 그녀는 플라스틱 나무를 규정성이라는 끈에 묶어 두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하고 뭐라고 언급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양가적이고 애매한 상태를 토로하기 위해서 사진 찍은 것이다. 전국민의 플라스틱 나무를 위해.